

# 발명과 경제발전(2)



朴成龍  
〈동양라이트 대표〉

## 目次

- I. 머리말
- II. 현대경제에서 발명의 중요성
  - 1. 발명이 경제에 미친 영향
  - 2. 세계는 특허전쟁시대
  - 3. 한국의 발명현황
- III. 맺음말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 2. 세계는 특허전쟁시대

중세에 있어서 봉건사회는 農奴들의 노동력과 삶의 공간(Lebens-Laum)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화폐가 발명되기 전에는 토지는 생존의 수단일뿐 아니라 권력과 보호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분할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세습되거나 전쟁 등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대지주는 일종의 小君主였다. 그의 토지 차용인은 자신의 신민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지주는 농노의 재판관이었고 평상시는 그들의 입법자였고 전쟁에서는 그들의 지도자였다. 지주는 그의 판단에 따라 이웃과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전쟁에서 패한 자들은 노예가 되어 승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으므로 이때의 전쟁은 노동력의 확보와 토지의 확보가 그 목적이었다.

이상과 같은 토지와 노동력의 확보는 곧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화폐의 발명으로 부역의 금납화가 진전되어 영주층은 그들의 직영지를 차지농업자에게 대여 경작케 함으로써 점차 지민취득자(Renter)로 전환함으로써 장원제는 해체되고 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되었던 것이다.

15세기말 이후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중상주의(mercantilism) 개혁인 자본의 본원적축적기였다. 이 시기는 제국간에 치열한 상업전과 무역전을 전개시키고 중국에는 식민지획득을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는 부등가교환을 통해서 엄청난 양도이윤을 얻었던 것이다.

1870년대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로서 독점체와 금융자본과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자본 수출이 두드러진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국제트러스트에 의해서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유럽의 열강 사이에는 상호대립으로 유럽의 신경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중동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을 시작으로 중국에 있어서 열강의 세력다툼 아프리카의 분할에 즈음한 갖가지 알력이 1941년 7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동맹과 영국, 프랑

스, 러시아의 3국 협상이 “발칸 반도에서의 어리석은 사건”을 둘러싸고 세계제일차대전 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 전쟁은 미국의 참전과 독일의 몰자고갈로 끝이 났다. 전쟁이 끝난후 10년 동안 세계는 과학과 발명이 굉장한 기세로 진보하고 있었다. 1920년대는 셀로판, 민간항공, 발성영화, 라디오방송 등의 이용이 가능해진 시대이다. 이 시기는 일찌기 없었던 대량의 부가 생산되고 있었다. 1929년 10월 미국의 증권시장이 붕괴 되면서 대공황이 나타났다.

이 공황은 자본주의 자동조절기능에만 의료하여 극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지한다면 자본주의, 그 자체의 기반을 무너뜨릴 가능성마저 있었다. 대공황을 계기로 각국은 수입제한을 강화하였고 국내 부정자원에 대한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과학과 발명이 더욱 진보하게 되었다.

1939년 9월에는 제이차세계대전이라는 독일중심의 구축국과 미국중심의 연합국 사이에 총력전(total war)이 일어났으나 생산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상처뿐인 전쟁으로 유럽을 공포에 몰아 넣고 대량의 “피”를 흘리게 한것은 무력사용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1945년 終戰과 더불어 새로운 사실에 포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특허전쟁의 시작이다. 즉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보다는 발명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수출하고 특허권 점유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현명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전쟁에 필요한 인명등 직접적인 희생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과학기술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연륜을 쌓아올린 기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하면 후진국을 장구히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그 원인이 있다

선진국은 과학기술 그 자체를 상품화하여 부등가교환 수단으로 새로운 형태의 착취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후진국을 간접 수탈하는 방법이 미래를 영구지배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유럽의 착취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거형 산업이전과 특허권독점이다.

### ① 과거형 산업의 이전

공업선진국은 철강, 조선, 전기제품, 섬유 등 과거형 산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반도체정보산업, 유지공학, 우주산업, 고분자화학 등 첨단기술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형 산업은 이른바 한물간 산업으로 환경파괴와 노동운동의 요인이 되고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산업이다. 먼저 철강산업을 보면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중형차는 약 “600kg”의 철재를 썼으나 최근에는 약 “450kg”의 철재를 쓰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대체시키므로 차체의 무게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 토목, 기계, 생활용품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므로 철강제품은 엄청난 수요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전세계적인 소비성향은 보다 소형화 보다 경량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질 좋고 가벼우며 견고한 특수금속 예컨대 “티타늄” “세라믹” 등의 신소재가 개발됨으로서 기술수준의 변화는 원자재의 구성부분까지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자 철강회사들은 도산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와 “모건” 재벌이 1901년 공동설립한 “US스틸”도 철강산업이 사양화되자 금리부담과 적자에 시달려 “피츠버그”의 본사빌딩까지 팔고 말았다. 이러한 도산위기의 산업은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조선공업, 섬유공업, 가전제품생산업 등도 해당됨으로 이러한 쓸모없이 한물간 산업만 그들은 먼저 차관제공이란 미명으로 後進國에 이전하거나 또는 경제협력이란 미명으로 해외에 이전투자 되거나 다국적기업이란 형태로 이전한다.

미국의 경우 85년 2천3백만불의 해외투자 잔액이 90년에는 4천2백억불을 넘게 되었고 일본도 85년의 4백40불에서 90년에는 다섯배가 넘는 2천억불의 해외투자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들이 쓸모 없는 낡은기술을 그들의 목적에 의하여 제공하는데도 야단법석을 떨고있는 기술이전이란 겨우 도면 몇장을 건네 주는데 불과한 것이고 이에 부족함이 생기게 되어 추가 기술제공을 요청하면 언제나 추가비용까지 청구해 온다.

로알티 또한 교묘한 수법을 쓴다. 장사야 어찌되었던 가장 잘되던 시절의 총매상고를 기준으로 하여 3%~5%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들은 이미 버려야 할 쓸모없는 기술을 처분하면서 까지 이의 이윤 추구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다국적기업 형태로 後進國에 진출할때는 철저히 위장하여 그들 後進國의 민족기업으로 둔갑한다. 인도네시아 최대기업 집단인 “삼림그룹”을 보자. 재분회사인 “보가리스”는 세계최대 규모이고 국내에서만 계열기업 260여개에 연간매출 100억달러를 넘는 대그룹이다. 그러나 삼림그룹의 합작 배경을 보면 “다이하스 히노” 등 낮은 이름은 일본기업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합작기업과 계약할 때 먼저 내걸고 있는 계약조건도 반드시 자기회사의 승인을 얻어 판매해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타회사제품은 일체 제조판매를 할 수 없으며 시설품과 원자재 및 식품은 반드시 자기회사 제품을 써야 하며 자기회사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승인을 받아 구입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와같이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 등의 수출을 통해서도 엄청난 이윤을 보답받고 있다. 낙후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된 제품이 선진국에서 최신기술로 생산된 공업제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後進國의 입장은 산업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흑자수출을 해야 하고 대신 산업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비싼 자동화기계 및 부품류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경제적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다. 동남아경제는 흔히 “달빛경제”라고 부른다. 자체 發光 능력이 없는 달과 같이 외부의 빛을 반사하여 동반성장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외부에서 빛을 반사하며 비추는 광원은 외국기

업이고 이 역할은 일본기업들이 거의 도맡고 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끝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산업들은 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수천 종류의 복합적인 합작회사로 설립된 이른바 선진국은 버려야 한다는 과거형 산업들이다. 1985년 2월 인도 “보팔시”에서 일어난 가스 유출 사고로 한 도시가 눈깜짝 할 순간 전멸당한 죽음의 공포기업도 다국적기업 “유니온가스”사이다. 그들은 공해 산업 쓰레기 산업을 다국적기업이란 간판을 내걸고 제3세계를 파고 들어 환경을 오염 시키고 이윤 또한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무서운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이 쉽게 잠입해 들어 갈 수 있는 까닭은 後進國의 통관검사 시설이나 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준이 희미하다는 것 등의 약점을 노린 것이다.

## ② 특허권 독점

선진국은 後進國의 특허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먼저 특허권 개방을 강요하고 있고 이에 개방이 이루어지면 이들 나라에 선출원하여 後進國 특허를 완전히 봉쇄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외국인 특허(발명)를 보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다. 마치 외국인 특허를 보호해 주기 위한 업무를 특허청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1919년 외국인 특허출원이 14879건에 비해 내국인 특허출원은 13,253건에 불과했다. 등록된 특허는 외국인이 6,138건인데 비하여 내국인은 고작 2,553건으로 전체 등록건수에 4분의1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출원하여 획득한 특허권은 대부분이 등록만 해놓고 5~6년이 지나도 사업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발명인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이상의 외국인 소유 특허장벽 때문에 제동이 걸려 개발에 착수할 수 없도록 초기부터 봉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작전에 성공하면 다음은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게 된다. “갈라힐스”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6월 27일밤 방영된 SBS TV와 회견에서 “대표부로 찾아오는 투자기업은 모두 자

기의 기술을 보호받을 시장을 원한다. 투자기업들이 투자를 고려하는 나라가 자신의 특허법 지적소유권 고문권을 보호해 줄 법제정이 되어 있는지 또 그 법을 엄격히 시행하는지를 제일 먼저 고려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특허권을 보호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이제 서서히 특허전쟁의 상대를 찾게 된다. 만약 이 전쟁에서 싸울 상대가 허약하기 짝이 없는 회사라면 도산해 버리거나 손해배상을 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후진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른바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놓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고 일단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놓고 특허전쟁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기업으로 만들기 시작부터 하는 것이다.

5.16혁명후 한국재벌의 출현은 이런 의미에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재벌들이 특허권 분쟁에 말려들고 있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기술을 빌려와서 대량생산에 의한 수출에 주력해온 우리기업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누가 이 전쟁에 살아남을 것인가? 89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는 대기업 6개 중소기업 37개 모두 43개사였다. 그러다 90년엔 24개사가 생산을 포기했다. 작년엔 그나마 11개사로 줄었다. 작년에 탈락한 중소기업은 갑을, 고려, 동양system,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11개사 중에서 몇이 더 탈락할지 모른다. PC산업은 이렇고 전자산업을 한번 보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업체에 지불하는 특허료 전체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자업체에 있어서 특허는 아킬레스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등 가전3사가 지난해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 외국업체에 건네준 특허사용료는 1천5백억원 정도이다. VTR의 경우 우리업체들은 매출액의 10%정도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 가전3사가 VCR생산을 위해 JVC, 소니, 암팩스 등 일본업체에 지불한 특허료는 1억1천95만3천불로 집계됐다.

반도체업체들도 지난해 1억1천8십5만6천불의 로열티를 미국의 IBM 등 11개 업체에 지불했다. 이같이 엄청난 로열티 부담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체특허를 보유해야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너무 늦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지난 5월 16일 다이오드 전문 전자부품회사인 “동성반도체”가 독자 기술투자 10억원을 들여 국내 처음으로 2만~3만볼트 용량의 고압 다이오드 개발에 성공했지만 일본회사들이 무자비한 “덤핑(dumping)” 전략에 말려들어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되고 말았던 회사가 어찌 이 회사뿐이었겠는가? 1919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백억불을 넘어 서면 경제는 주눅이 들어 “낙동강 오리알”로 정치가 없을때 발명대국 일본은 800억불의 무역흑자를 주체할 길 없어 수입축진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 3. 한국의 발명현황

#### 1) 한국발명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의 발명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일제 식민치하에서 창의력교육을 받지 못했고 한국인에게 과학발명을 봉쇄한 일제식민지정책 등에도 영향이 있지만 해방과 민족분단, 6.25라는 전쟁과 격동하는 시대적 환경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한국발명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둘째 한국발명의 실태를 조사하고 끝으로 한국발명의 문제점을 분석키로 한다.

#### ① 한국발명의 시대적 배경

영국의 발명가 스티븐슨(G. S. Stephenson)이 1814년 증기기관차를 발명하여 1830년 최초의 철도를 맨체스터(Manchester)와 리버풀(Liverpool) 사이에 부설하고 공업선진국으로써 강력한 산업국가체제를 완성시켜 나갈 때 증기기관차는 계속 개량되어 19세기초 영국에 비해서는 200년 프랑스에 비해서는 150년이나 후진상태에 있었던 독일의 산업혁명 수행의 길을 열어 주었고 미국이나 러시아경제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다.

철도부설은 그 자체가 산업자본을 형성하였

음은 물론이고 원료생산지와 공업중심지와의 연결이 이루어져 국내시장을 통일할 수 있어서 상품생산과 유통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철도부설이 시작되었는데 몇몇 자본가와 봉건관료 사이에 합자회사 성격의 기업체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1899년 박기중 등이 발기한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는 부산에서 하단까지 철도부설을 시작으로 서울-원산-함흥 사이의 철도부설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실지측량까지 하였다. 동년에 대한철도회사에 의하여 경성과 의주간의 경의선 부설계획도 수립되었고 1898년에 세워진 대한운수회사는 경성과 목포 아이에 철도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철도부설은 외국자본과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고 철도운수의 식민지화는 경제 전반의 식민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므로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일제 강점하에 식민지였던 우리경제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상징되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은 과학발명활동을 동결시킨 일이었다. 일본에서는 과학발명교육을 국가정책적으로 장려하였지만 반대로 한국인의 과학발명교육은 철저히 봉쇄하였다.

해방 당시 한국인 가운데는 판사, 의사, 교사 등 전문직 인력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발명가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고 이공계 대졸출신 조차 수10명을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독립을 맞이했으나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이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군정하에서 지하층과 친일 상공인 및 그와 연합한 보수적 정치세력이 미국의 강력한 지원하에서 우위를 장악하게 되면서 귀속공장은 자주관리를 부정당하면서 일부 반민중세력에 불하되었고 지위층의 이익을 일정하게 대변한 불철저한 농지개혁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립적 국민경제 건설이란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원조의 개시와 더불어 새로운 성격으로 대외

의존성이 형성될 계기가 주어졌다. 이로써 우리경제는 미국권에 편입되어 주변부로서 중심부의 분업구조에 상호관련의 그물망 속에서 출발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만들어낸 GATT 브레튼우즈 자유무역체제를 미국이 위반하여 세계블록화를 형성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경제국경을 허물어 뜨리고 지역패권주의로 game의 틀을 바꾸어 놓고 있다. 세계는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의 3극체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므로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끼이지 못한채 세계경제에 블록화 추세에 외톨이 신세가 되어 있다.

## ② 한국발명의 실태

여기서는 한국발명특허의 현황을 1988년부터 1992년 7월 현재까지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총괄적으로 언급하고 전국민이 참여한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에 발명대상을 받은 작품도 보기로 한다.

### ① 발명특허출원현황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하여 갖춘 서류를 특허청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원이 많다는 것은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출원이 적다는 것은 그 반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표 1>

권리		연도			
		1988	1989	1990	1991
특허	내국	5,696	7,021	9,082	13,253
	외국	14,355	16,294	16,738	14,879
	계	20,051	23,315	25,820	28,132
※ 1991年 日本特許出願件數					369,396

출원건수는 일본이 369,396건인데 우리는 불과 28,132건으로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나마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출원하였으므로 내국인보다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다. 1988년 총출원건수 20,051건 중에서 외국인이 14,355건인데 비해 내국인은 불과 5,696건이고 점차 내국인이 증가되고 있는 1991년에도 총 28,132건 중에서 외국인이 14,879건으로 내국인 13,253 보

다 특허출원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원하여 등록되는 등록률도 외국인이 월등히 높아서 등록건수가 많아지고 내국인은 적게 출원하고 등록률도 낮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표2 참조).

<표 2>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특허	내국인	575	1,181	2,554	2,553	
	외국인	1,599	2,791	5,208	6,137	
	계	2,174	3,972	7,762	8,690	

② 발명특허 등록현황

등록이란 특허권리를 인정하여 公簿에 기재되었음을 알리고 이로부터 전용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하여 검토해보면 외국인의 등록률이 높고 표 2를 보면 외국인의 특허등록권은 1,599건인데 비해 내국인은 불과 575건이고 1991년 외국인의 발명특허등록이 6,137건인데 비해 내국인은 2,553건뿐인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말로만 걱정했던 특허권지배가 수치상으로 확실하게 드러남으로써 발명특허등록건수가 선진국에

<표 3>

월		1	2	3	4	5	6	7
특허	내국인	406	234	298	269	217	252	273
	외국인	813	673	573	515	485	509	565
	계	1,219	907	871	784	702	761	838

<표 4> 發明特許出願 441

국가 발명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스위스	이태리	기타	계
출원건수	1,226	569	313	104	48	26	47	43	28	81	2,485

<표 5>

국가 발명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스위스	이태리	기타	계
등록건수	273	342	127	30	16	9	12	7	3	19	838

비하여 보잘것 없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에서까지 외국인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1992년 발명특허 월별 등록현황

월별현황을 보면 표3에서와 같이 금년에 들어서도 계속 외국인의 등록이 늘어나 내국인의 특허등록을 압도하고 있다. 1992년 1월 총특허등록 1,219건 가운데 외국인이 813건이고 내국인은 불과 406건이며 7월에 와서도 총838건중 외국인이 565건이고 내국인은 273건임을 알 수 있다.

④ 1992년 7월 국가별 출원현황

여기서 1992년 7월을 보게 된 것은 매월 비슷한 수준으로 출원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조사한 7월을 기준하게 되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에 있어서도 내국인은 1,226건 출원했으나 외국인은 1,259건으로 우리보다 많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과 미국의 출원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 특허의 거의 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으로 볼 수 있다.

⑤ 1992년 7월 발명특허등록 현황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는 발명특허도 일본이 우리보다 많다. 일본은 342건 등록되었고 한국은 273건이 등록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본은 적게 출원하고도 우리보다 많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허선진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속>